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베트남 빈멕병원 협력… 亞 본격 공략

진료 체계에 첨단바이오 접목
면역항암제 선별 서비스 상용화

“오가노이드 기반 정밀의료 도입
글로벌 표준제정 위한 이정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빈멕국제병원(Vinmec International Hospital)과 오가노이드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의 사업화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베트남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밀의료 분야의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하고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두 기관은 지난 2023년 8월, 오가노이드 기반 정밀의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는 베트남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 임상연구를 시작해 왔다. 이번 계약은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함을 의미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빈멕국제병원은 베트남 최대 민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와 빈멕국제병원 응우옌 쉐안 흥 센터장이 지난 3일 하노이 빈멕국제병원에서 개최된 동반진단 정밀의료 상용화 계약식에서 계약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기업인 빈그룹(Vingroup)의 의료 부문 핵심 계열사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베트남 대표 병원이다. 이번 협약은 이 병원의 진료 체계에 첨단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환자 조직에서 실제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한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항암 치료제 반응을 예측하는 정밀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자회사 VO S Discovery(디스커버리)는 빈멕국제병원과 협력하여, 베트남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면역항암제 선별 서비스를 공동으로 상용화한다.

정밀의료는 환자의 유전적·세포적 특성을 반영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다. 오가노이드 기반 동반진단 기술은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글로벌 의료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년 5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동물실험의무화 폐지’라는 제도 변화의 수혜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윤리성과 과학성을 갖춘 인간 유래 시험 플랫폼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 및 병원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오가노이드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를 아시아 시장에 본격 도입하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 중동, 유럽 등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암 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빈멕국제병원 측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기술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정밀의료 분야에서 베트남 의료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신장학회 참가
에피스클리 알린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는 7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2025 유럽 신장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 부스를 설치해 신장학 분야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를 소개한다. 특히 현재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클리(성분명: 에클리주맵)’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에피스클리는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로, 발작성 야간혈색 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용독 증후군,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등을 적응증으로 확보했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발매돼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에피스클리는 2023년 5월 유럽에서 품목허가를 승인받고, 같은 해 7월부터 유럽 법인을 통해 선보여졌다. 이후 프랑스 최대 구매조합, 네덜란드 주정부 입찰 주주 등의 성과를 지속해 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에피스클리는 유럽 시장에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선택지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럽, 미국 등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월드몰 미디어 상틀리 앞에서 브랜드 관계자들이 롯데레드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롯데유통군

롯데 유통군·계열사 총출동 18일간 ‘레드페스티벌’ 행사

롯데 ‘최대 100만원 환급’ 이벤트
여름맞아 수박·한우 최대 반값 제공

롯데 유통군이 통합 쇼핑 축제 ‘롯데 레드페스티벌’을 이달 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진행된 롯데레드페스티벌은 롯데 유통군을 비롯해 롯데 그룹 계열사가 총출동해 패션, 식품, 쇼핑 등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혜택을 선보이는 행사다.

이달 소비심리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는 행사 규모를 확대해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롯데 유통군을 포함한 롯데그룹 참여사 20개사, 30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행사기간도 기존 11일에서 18일로 일주일 연장됐다.

가장 먼저, 롯데는 ‘최대 100만원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롯데온, 롯데하이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구매액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한 번만 구매해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구매

계열사 수에 따라 경품 응모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가성비 중심 행사 상품도 선보인다. 여름 시즌을 맞아 수박과 한우를 최대 반값에 제공한다. 이 외에도 ‘수퍼 생연어’, ‘항공직송 활 랍스터’, ‘행복상생란’ 등이 행사 상품에 포함됐다.

프리미엄 상품군 할인 혜택도 준비됐다. 롯데백화점은 럭셔리 브랜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멤버스카드 결제 기준, 구매 금액의 7%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GFR은 ‘나이스클럽’, ‘까웨’ 등 인기 브랜드를 저가에 선보이고, 최대 7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마트·롯데웰푸드 등은 여름맞이 행사 상품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롯데마트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가전 행사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롯데웰푸드는 웰푸드물을 통해 빙과류 상품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테마파크 입장권도 최대 반값에 만나볼 수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테라 구매하고 CJ ONE 포인트 쌓아요”

하이트진로-CJ ONE, 협업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가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과 협업을 진행,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테라 출시 6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해 전개 중인 ‘테라 Jump Up 2025!’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비자 접점을 더욱 넓히고 테라의 대중성과 친밀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J ONE은 3100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대표 멤버십 서비스로 CJ 브랜드(올리브영, CGV 등)는 물론 메가MG C커피, 이마트24 등 다양한 브랜드 60여 곳에서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하이트진로는 전국대형마트에서 테라 453mL의 8캔 팩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CJ ONE 1200 포인트를 적립

해주는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방법은 제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스크래치 쿠폰 바우처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이어 출시 8주년을 맞은 국내 발포주 판매 1위 브랜드 ‘필라이트’도 이번 CJ ONE 포인트 적립 이벤트에 함께 한다. 필라이트 355mL 6캔팩 구매하는 CJ ONE 500 포인트 적립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하이트진로는 CJ ONE과 연계된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테라 음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앞으로도 테라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 국민 대표 맥주로서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말레이 쿠알라룸푸르에 뚜레쥬르 1호점

‘뚜레쥬르 선웨이 피라미드점’ 오픈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 신규 매장인 ‘뚜레쥬르 선웨이 피라미드점’을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매장은 지난 1월 현지 파트너사 ‘스트림 엠파이어 홀딩스(Stream Empire Holdings)’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첫 번째 매장이다.

‘뚜레쥬르 선웨이 피라미드점’은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복합 쇼핑몰 선웨이 피라미드 2층에 약 60평 규모로 위치했다. 특히 뚜레쥬르의 고품질 제품들을 엄선해 선보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도 K-베이커리 대표 주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뚜레쥬르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도 토탈 K-베이커리를 콘셉트로 K-베이커리 본연의 빵과 케이크를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오랜 기간 인기가 입증된 패스트리, 생크림 케이크 등의 스테디셀러 제품 뿐만 아니라 현지 고객들의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해 식사빵을 활용한 샌드위치, 음료 등으로 탄탄한 라인업을 갖췄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도네시아에서 뚜레쥬르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점도 말레이시아 시장 안착에 긍정적인 요소다.

/신원선 기자



JW중외제약
티트리오일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출시

JW중외제약은 신제품으로 티트리오일 첨가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외용 항생제로, 항균 성분인 무피로신과 함께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상처 부위의 감염 예방은 물론 피부 트러블도 관리해 준다. 상처를 비롯해 모낭염,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서 활용 가능하다.

주성분인 무피로신은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 특히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포함한 다양한 세균에 작용하는 기전을 갖췄다. 티트리 오일은 천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한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상처 관리에 더해 피부 트러블 관리 영역까지 제품군을 확대한다.

/이청하 기자